

광주시, ‘코로나우울’ 털고 ‘마음면역’ 키운다

상담 지원 인력 66명에서 109명으로 확대

비대면 서비스 늘리고 24시간 상담전화도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피로감 뿐만 아니라 경제·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심리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심리지원단과 자치구별 심리지원단 인력을 현재 6개반 66명에서 11개반 109명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또는 격리자, 코로나19 재난대응 인력,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 심층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과 전문의인 마음건강주치의를 무료로 연결시켜 지원하고 온라인, 모바일, 화상상담 등 비대면상담 채널을 확대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코로나 우울에 노출되기 쉬운 영구임대 아파트 내 복지관과 연계한 열린마음상담센터 활성화, 자치구별 상설 또는 비상설 이동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경찰, 교육

청, 청소년·노인관련기관 등과도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화사업으로 전국 모델이 된 ‘마인드링크’를 진행해 청년 마음건강지원 홍보·교육, 마음건강 자가검진과 심리상담, 고위험군 조기 중재 프로그램, 개별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 검진과 상담, 정보 접근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리상담 1만8751건, 정보제공 2만2918건, 마음건강주치의 심층상담 1388건을 진행했다.

최윤희기자



광양시 드림스타트,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약 15여 명 자원봉사자 참여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사전 사례회의를 거쳐 한 가구를 선정해 아동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랑의 공부방 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5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발열, 기침, 호흡기 이상 유무 체크 및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

저히 준수하며 실시됐다.

공부방 꾸미기 프로그램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광양지구동문회 사랑나눔 봉사단(이하 포공 사랑나눔 봉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18년부터 12가구를 지원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필요한 책상, 의자, 책장, 선반, 신발장 등을 설치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강진 군동면, 수거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이불세탁 서비스 제공

주민들이 기탁한 후원금으로 ‘뽀송뽀송 이불 세탁방’ 운영

강진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은주, 강춘혁)에서는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대해 주 2회(매주 화·목) 뽀송뽀송 이불 세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동면 지정기탁 후원금 사업인 ‘뽀송뽀송 이불 세탁방’은 수거에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된다.

40명의 복지이장이 해당 마을의 대상자 가정에서 이불을 수거하여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접수하면 군동면 안풍마을에 소재한 세탁업체 선해피누리에 세탁 의뢰를 하게 된다.

1~2일내에 세탁, 살균 건조, 포장 과정을 마친 이불은 면사무소로 배달 되고, 맞춤형복지팀에서 품목 및 수량, 세탁 상태 등 검수를 마치면 복지이장은 세탁물을 수령하여 대상자 가정에 전달한다.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이 세탁소에 이불

세탁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고, 비싼 세탁 요금으로 세탁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매 주 2회 확대 운영한다.

특히 3월 한달 동안 겨울에 사용한 두꺼운 이불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새봄맞이 이불세탁 서비스를 중점 제공할 방침이다.

강춘혁 군동면장은 “어려운 대상자 가정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서는 이불 청결상태는 알지 못한다. 이불세탁을 위한 수거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운영을 통해 복지이장이 어려운 이웃을 더욱 살피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9월부터 군동면, 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동면 이장단, 농업회사법인 선해피누리 4개 기관·단체는 은 취약계층 이불 세탁 업무 협약을 체결



하여 마을기업인 세탁업체는 이불 세탁 비용을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업무 역할을 분담하여 ‘뽀송뽀송 이불 세탁방’ 운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